

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
첫 번째 하나님-사람이 그분의 아버지께 드린 뛰어난 기도와
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밝히는 가르침

성경: 마11:25-30

I.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주변 도시들을 책망하신(마11:20-24) 후에, 아버지께 기도하셨다(25-26절)

- A. 주님은 그분의 기도에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시며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주로 인정하셨다
1. 비록 사람들은 그분의 사역에 응하는 대신 그분을 중상 모략했고(16-19절) 큰 도시들은 그분을 배척했지만(20-24절), 그분은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셨다
 - a. 주님은 그 도시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셨다. 바로 그때 그분은 아버지께 대답하시며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것이다—25-26절.
 - b. 그분은 행하시는 일의 번창을 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.
 - c. 그분의 만족과 안식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환영해 주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데 있었다—26-27절.
 2. 주님께서 높이 찬양하시는 말씀에서 *아버지*는 아들이신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리키고, *하늘과 땅의 주는*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가리킨다.
 - a.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원수에게 패배 당했을 때 하나님은 ‘하늘의 하나님’(스 5:12, 단2:18, 37)이라 불리었으나, 아브라함은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을 ‘하늘과 땅의 소유주’라고 불렀다(창14:19, 22).
 - b. 인자이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‘하늘과 땅의 주’라고 부르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땅 위에 서 계셨음을 가리킨다.
- B. 주님은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언급된 모든 것들(아들을 아는 지식과 아버지를 아는 지식)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 것을 찬양하셨다
1. *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* 주님을 거절한 도시들의 모든 사람들과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.
 2.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아는 지식과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인 제자들에게는 계시하는 것이었다—마19:13-14, 고전1:26-28.

II. 그분의 기도에 근거하여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밝히는 가르침을 주셨다—마 11:27-30

- A.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것이다—마11:27
1.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아들의 몸의 건축을 위해 아들에게 주셨다—27상, 요6:37, 44, 65, 17:6하, 18:9
 2. 오직 아버지만이 그분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아들을 아신다—마11:27하, 참조 골 2:2, 마16:15-17, 갈1:15-16, 엡3:4, 빌3:10
 - a. 삼일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을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—딤후전1:4.
 - b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축이요 가장자리 테요 바퀴 살(내용 전체)이다—골1:17-18, 3:10-11.
 - c. 신약은 복음서들에서 육신 안의 그리스도(요1:14)를, 서신서들에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(고전15:45하)를, 계시록에서는 칠 배로 강화된 생명 주는 영이

- 신 그리스도(계1:4, 3:1, 4:5, 5:6)를 계시한다.
- d. 우리가 아들을 알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—마16:17, 엡1:17.
 - e.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, 만유에 미치시는,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울처럼 열망해야 한다—빌3:8-10.
3.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근원이시며 제작자이신 아버지를 안다—마11:27하
 - a. 아들과,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기 원하시는 믿는이들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.
 - b.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 반드시 아들이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—요17:6, 26, 참조 14:8-10.
 4. 아들은 그분의 몸의 형성을 위해 그분의 믿는이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신다—마11:27하, 요17:6상
 - a.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가진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다.
 - b.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유기체를 갖기를 갈망하셨고, 아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불러 그분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거둬나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변화시키시어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는 그분의 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셨다.
- B. 주님의 가르침은 몸의 머리요 원형이요 모형이신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이신 그분 자신에 관한 것이다—마11:28-30, 골1:18상, 요12:24, 벰전2:21
1. 그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적이셨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셨다—마11:26, 26:39, 42.
 2. 그분은 온유하시어 반대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고, 겸손하시어 그분의 마음에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낮추셨다—11:29.
- C. 주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몸, 그분의 재생산, 그분의 복사판인 그분의 믿는이들에 관한 것이다
1. 주님의 믿는이들은 마음에서부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의 온 존재를 가지고 몸으로 그분께 온다—11:28상, 롬12:1.
 2. 믿는이들은 주님의 명에—하나님의 뜻—를 지고 그분의 모형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 그들의 영 안에서 그분을 복사한다—마11:29상, 벰전2:21.
 3. 주님의 명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.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만족 가운데 있는 그분의 안식을 함께 나눈다—마11:28하, 29하, 30.
 4. 주님의 명에(아버지의 뜻)는 편하여 괴롭지 않으며, 그분의 짐(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)은 가벼워 무겁지 않다—30절.